

생활인구가 답이다-강진의 새로운 희망 이야기

기고



백경자

강진군 문화관광과장

인구 감소는 이제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의 터전과 미래를 위협하는 현실이다.

특히 지방 소멸의 위기는 많은 지역을 슬픔과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길은 있다. 강진군은 이러한 어려움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꾸며 모두가 꿈 꿀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답은 바로 '생활인구'다.

생활인구란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잠시 머물며 경제활동과 따뜻한 교류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다. 지역 상점과 음식점, 숙박업소에서 흔적을 남기고, 때로는 축제와 사람들 사이에서 추억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주체이다. 강진군은 이 생활인구를 통해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강진군의 혁신적인 정책인 '반값여행'이 있다. 반값여행은 강진을 찾는 관광객의 여행 경비를 절반 지원해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강진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정책이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강진의 자연, 문화, 그리고 따뜻

한 사람들을 경험하며 강진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강진군은 이러한 성과를 공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제2회 강진 반값여행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 전문가는 "강진 반값여행은 단순한 정책을 넘어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화폐 회전을 상승으로 강진의 경제가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포럼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올해 강진 반값여행을 통해 발생한 소비 금액은 51억3천 원, 생산유발 효과는 15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60억 원에 이른다. 숫자 이상의 이 성과는 강진 곳곳에서 뿌리내리고 있다.

강진의 축제도 이 여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맥축제와 청자축제는 강진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방문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하며 다시 강진을 찾고 싶게 만든다. 강진을 처음 방문한 이들이 "강진에 가면 꼭 다시 가고 싶다"고 말할 때, 우리는 생활인구의 가능성을 본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강진군민들이 있다.

강진읍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한 군민은 "반값여행 덕분에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이 정책이 가져온 변화를 기쁨으로 전했다. 또 다른 군민은 "강진이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며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강진군의 변화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역 주민에게 자부심을, 방문객에게 따뜻한 기억을 남기며 강진은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생활인구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상주 인구 중심의 정책을 넘어 생활 인구를 포함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강진군의 반값여행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생활인구가 늘어날수록 강진군은 더 많은 이들과 연결되고, 그 연결이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

강진군이 보여준 변화는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다. 그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이자,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이곳에서 머물렀던 이들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강진의 오늘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정에 함께할 것이다. 생활인구가 늘어날수록 강진의 경제는 활기를 찾고, 사람들은 강진이라는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다.

강진은 이제 단순히 방문하는 곳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다시 오고 싶은, 그리고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이 쉬어가는 특별한 장소가 되고 있다. 강진의 내일은 생활인구와 함께 더 밝고 아름다울 것이다.



기고

박태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장

양질의 일자리·외국인 숙련공 육성해 인구소멸 극복해야

목포시를 비롯해 신안, 해남, 영암, 진도, 무안, 장흥, 강진, 완도군 등 총 9개 시군은 전남도 내에서도 서남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지역은 면적이 4,763km²로 전국의 약 4.7%를 차지하지만, 인구가 약 63만명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의 1.2%에 불과하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남도내 18개 시·군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중 전남 서남권의 8개 시·군이 소멸 위기 시·군에 포함돼 있을 정도로 이 지역의 인구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는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저출산, 고령화로 야기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산업시설과 젊은 청년이 정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지역의 고질적인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원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 첫째, 내국인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둘째, 지역 특화된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를 개발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근래들어 조선업종의 활황으로 영암군과 해남군은 E-9 비전문외국인근로자의 고용율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법무부로부터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D-2, D-10 유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를 지원해 해지역 인구소멸에 대비하고 있다. E-9 비전문외국인근로자는 자국에서 특정한 기술능력 없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한국어시험에 합격해 국내에 취업하므로 E-7 전문외국인근로자 보다는 숙련 능력이 떨어지고, 한국어도 다소 서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입국 후 특화된 훈련이 필요하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

업인력공단에서는 2023년부터 외국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선업 분야에 E-9 특화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도장, 용접, 산업안전 교육 등 필수적 기술훈련과 해당 산업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언어, 문화 등의 교육이며 올해부터는 제조업, 건설업 등 7개 업종에도 E-9 특화 훈련을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 11월 18일 이 지역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 스마트항만 및 물류 분야를 기반으로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가 문을 열었다. 목포 지역은 목포신항만을 비롯해 여수광양항 등과 연계해 항만물류산업의 주요 요충지이다. 지역의 강점을 잘 살려 ESG경영의 주요이슈인 저탄소·친환경이라는 산업패러다임에 발맞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교육과정 개발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5년간 28억 원의 예산을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에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항만하역 자동화 전환, 저탄소·친환경 항만하역 운영과정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항만 및 물류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향후 목포신항만(주), 여수광양항만공사, 목포항만물류협회 등 지역 약 40개 주요 항만 물류기관 및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저탄소 친환경기반의 산업전환을 선도해 이 지역에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인구절벽, 지방소멸의 시대에 지역사회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제이다. E-9 특화훈련,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가 젊은 청년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잘 숙련된 외국인근로자가 부족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구소멸에 대비한 현명한 해결책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독자투고

최근 몇 년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교묘해지며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개인의 재산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초래해 우리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전화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문자 메시지나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링크를 클릭하게 유도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방식으로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

"보이스피싱 피해,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나 '계좌 이상 거래'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는 신중히 응대해야 한다.

여수경찰서는 관내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액 현금 인출시 112에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 차단 신고체제를 구축했고,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범

죄예방 교육으로 피해사례, 예방법 안내 등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 및 지역 관내 여러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최악의 서민침해형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당장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실천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임채원 (여수경찰 형사과 사무관)

@ji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